

제2회 코리아 F1국제포럼

“지역·국가 브랜드 높이기 가장 효과적”

중계권료 6천만달러 TV 시청인구 수십억명 허허벌판 스키스카시 26만명 휴양도시 변모

한국 자동차산업학회 주관으로 1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코리아 F1국제포럼'에서는 국내외 모터 스포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함께 F1대회 성공개최와 개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조언들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F1대회가 국가 경제 및 관광산업은 물론 산업관련 투자유치와 국가 브랜드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초대형 국제행사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 레이스 출신 기노시타 노보루(84)씨는 'F1 그랑프리'의 경제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인 F1 그랑프리는 중계권료만 6천만 달러, F1 TV 중계 시청인구가 90억 명에 이를 정도로 개최효과는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F1대회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올림픽에 비해 매년 개최됨에 따라 관광산업활성화·고용창출·생산유발 효과 등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국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 스키스카시의 F1 경주장을 예로 들면서 "1963년 스키스카시에 서킷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호텔 등 관광 인프라가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26만의 휴양도시로 발전했다"면서 "스카시의 경우 연 1회 F1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00억엔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F1대회가 국가경제에 미

치는 많은 파급효과를 고려해 대부분의 국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자동차산업학회 김기찬(카톨릭대 교수) 회장은 "중국 상하이 F1 대회의 효과를 비취볼 때 전남 F1 대회도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건설·숙박·통신·서비스업 등에 대한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전남의 스포츠 이벤트 강대도시로의 발전 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조 한국관광학회 부회장은 'F1과

관광산업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F1대회와 여러 스포츠 이벤트 결합을 통한 스포츠 관광 전략과 지역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하나의 지역 이미지 형성에 성공할 경우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끌 수 있다"면서 "F1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 국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톤 솔츠 조선대 교수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폴란드·이집트에도 못 미치는 33위를 기록하는 등 저조한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사가 F1대회"라며 "F1대회를 통한 브랜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신뢰성·혁신성·역동성·지도력 등

이 모두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 F1대회를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라자 목타르 말레이시아 F1 관계자는 "F1대회 개최는 경기장 입장권 판매와 같은 직접적 수익뿐 아니라 모터 스포츠와 연계된 자동차 및 문화사업 발전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 측면에서 더 많은 부가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계 F1대회 최대 VIP고객인 중동 관광객을 타깃으로 마케팅이 이뤄질 경우 훨씬 많은 부가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향후 전남지역의 관광 및 산업관련 투자유치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코리아 포뮬러(F1)대회 개막이 오는 2010년 10월로 예정된 가운데 대회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F1경주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열린 대회 경주장 건축을 기공식. <광주일보 자료사진>

국회 농수산물식품위 농협법 개정안 의결

중앙회장 단임 제한·지역농협 사업구역 확대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 연임 규정을 없앴고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뽑도록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했다. 또 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삭제하고 조합장과 학계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사업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을 추천하게 된다.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했고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둘 이상

의 시·군·구에서도 지역농협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규모가 2천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조합장을 비상임직으로 하도록 대

통령령으로 규정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위는 농어업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에 지원받은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 대상 신용사업) 자금을 연 5%의 이율로 5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농식품위는 또 정부안보다 2천172억원 증액된 7천437억원 규모의 농림수산물식품 분야 추정안도 의결하고 예정위로 넘겼다. /연합뉴스



자기부상 경전철 고무차륜 경전철 철제차륜 경전철

자기부상 방식이나 고무·철제차륜 방식이나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 어떤 방식의 경전철을 도입할 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예산 절감과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도시철도 1호선과는 달리 경량전철이 도입되는 2호선에 도입이 가능한 경전철 차량시스템은 ▲차륜 없이 전자석에 의해 부상 주행하는 자기부상방식 ▲고가 및 지하 전용궤도를 고무차륜으로 하는 고무차륜방식 ▲전용궤도를 철제 차륜으로 주행하는 철제차륜방식 등이 있다. 또 지선에는 노면전차, 간선급행차량, 소형 전차 등이 가능하다.

시는 2호선 노선이 확정된 뒤 차량시스템을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역 내 경전철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국토해양부 관계자, 한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차량방식과 관련해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전과장이 '광주도시철도 경량전철 시스템 적용방안'을 설명한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은 물론 광역철도 화순선 등 건설이 현안사업으로 부상하면서, 이들 사업에 친환경 최첨단 차량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도시철도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맞춰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설하되,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기간도 단축하는 장점이 있는 국산화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경전철 관련 전문가와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경전철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도 세미나를 개최해 다양한 국내·외 최신기술을 습득하고, 지역에 알맞은 교통수단의 연계성, 이용자 쾌적성, 건설·운영비 등을 종합 검토해 광주에 적합한 차량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경전철은 차량규모나 수송수요 측면에서 지하철보다 작고, 버스보다는 큰 교통수단이며, 1회 운행에 2량 약 200명이 탑승이 가능하고, 3~5분 간격으로 무인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 대기오염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이며,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가 약 40%, 운영비는 50%를 절감할 수 있으나, 기존도로의 중앙차로를 따라 주로 지상고가로 건설돼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05년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최적으로 제시된 백운광장에서 현천역까지 총연장 27.40km의 순환형으로 정해졌으나, 광주시는 확장노선이 5년이 지난 경우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철도법에 따라 현천역에서 철도까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남북형을 추가한 2개 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기존 순환형에 포함됐으나 남북형에서는 제외된 서구 금호·중앙지구 주민 등의 반발이 거세 노선 확정

이 유보된 상태다. /윤현석기자 chadoll@

광주도시철도 2호선

경전철 차량시스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국건설교통기술개발원 전문가 등을 초빙해 17일 오후 2시 철단지구 광주테크노파크 내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차량시스템 선정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연구기관, 사회단체, 기업, 시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전철 도입 필요성 및 방향', '경량전철 도입 필요성 및 기술개발 동향', 차량 및 시스템 소개 및 토론회 등의 순으로 개최된다.

세미나 1부에서는 권석창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이 '경량 전철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정책방향', 임청권 국토부 교통 2실장이 '경량전철 도입 필요성 및 기술개발 동향'을 주제로 경전철 도입 필요성과 방향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신병천 자기부상실용화사업단장이 '자기부상 열차원리 및 기술개발 현황', 우진산전의 장덕영 상무가 '고무차륜(AGT) 원리 및 기술개발 현황', 현대로템사의 김필환 차장이 '철제차륜AGT의 원리 및 기술개발 현황'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